

## 金石文에 나타난 ‘茶’字小考

李 炯 石\*

精神文化研究院

(1987年 12月 12日 接受)

### An Illustration of “茶”(tea) Inscription in Epigraphs”

Lee Hung Suk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Received December 12, 1987)

#### Abstract

An epigraph is an inscription mainly on a metal or stone monument, but some cases on bones or tortoise carapaces, ceramics, and coins.

The “茶” inscriptions in 251 epigraphs in Korea are on 16 monuments, one tile, and one ceramic. By kingdom 5 belongs to Shilla and 13 to Korea. The first “茶” inscription is on the Changsung-Tap of Borimsa Temple in Changhung-Kun, Chullanam-Do, which was established in 884 A.D. Religiously most of them are related to Buddhism.

Tea was most valued among valuables like gold, perfume, beads, etc. and so bestowed by kings.

The study of epigraphs shows that our tea culture had most prospered during the Kingdoms of Shilla and Korea.

#### I. 緒 論

金石文이란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기록되어 있는 銘文을 말하는데 크게 金文과 石文으로 나누어진다.

金文은 금속제의 용기, 악기, 무기, 화패, 인장, 범종, 造像, 도량형 등에 새겨진 문자이며 石文은 비석, 墓誌 등에 새겨진 문자이다. 그리고 甲骨類, 陶器類, 錢幣類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금석문은 출처나 전해 내려오는 사정이 분명한 것일수록 가치가 크다. 그리고 정확한 문헌이 적은 고대사회문화의 해명에 기여한 바가 크며 때로는 문헌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한다.

금석문에 기록된 내용을 고문헌에 기록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금석문에 기록된 내용은 반영구적으로 원형 보존이 가능하나 용지에 기록된 내용은 보존 수명이

짧다. 따라서 용지에 기록된 내용은 수 차례에 걸쳐 옮겨 적었으나 후대에 역사를 상고하여 기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는 흥덕왕 3년(828)년(조)에 ‘당나라에 들어 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령이 차씨를 가져 오니 왕은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는 ‘김해 白月山에는 죽로차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김수로 왕비인 허씨가 인도에서 가져 온(48년) 차씨라고 전한다’고 기록, 우리나라 차의 전래에 약 780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한 시기는 1145년이며 이능화가 「조선불교통사」를 편찬한 시기는 1914~1943년 사이로 모두 연대의 차이는 있으나 후대에 편찬·기록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금석문에는 건립 또는 제작 당시 상황과 연대를 생생하게 알 수 있으며 오기하거나 변조하기 힘든

귀중한 문화 유산이다.

本考에서는 건립·제작연대를 비롯, 글을 지은 사람, 글씨를 쓴 사람, 주인공의 생애, 업적, 사상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된 碑銘을 중심으로 조사·정리하고 기록 내용이 단편적인 도자기, 와당에 기록된 내용을 첨가,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대 금석문에 기록된 '茶'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금석문별 기록조사

#### 1. 금석문별 기록 고찰

##### (1)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普照禪師彰聖塔碑)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가 지산에 위치한 寶林寺는 지금부터 1200년전 보조선사가 현강왕의 宣諭를 받들어 창건한 신라시대의 고찰이다.

보물 158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조선사 창성탑비는 귀부, 비신, 이수가 완전한 형태로, 유래, 년대가 확실한 신라시대의 비석이다.

탑비 건립년대는 신라 현강왕 10년(884년)으로 보조선사가 입적한지 4년후에 건립되었다.”

탑비문은 金類(김영)이 짓고 글씨는 金蓮(김원)이 썼으며 茶와 관계되는 내용은 ‘實茶藥迎之師以處’로 신라 47대 현안왕(재위 857~860)이 즉위한 이듬해



(858), 대왕이 보조스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禪道를 높이 우러르시고 서울에 오셔서 禪麻(佛門)를 열어 줄 것을 청하였으며 재차 6월에 장사현 副守 金彦鄉을 보내어 茶藥으로 선사를 맞아 雲巖에서 六祖의 가르침을 베풀라 하셨다’로 茶자가 선명히 음각되어 있다.

보조선사 體澄>신라 애장왕 5년(804)~현강왕 6년(880)>은 신라의 승려로 시호는 보조, 속성은 김, 웅진사람으로 어려서 출가, 花山勸法師의 회상에 있다가 흥덕왕 2년(827) 가랑 협산 보원사에서 비구계를 받다. 설산 역성사에서 廉居士에게 선을 닦고 회강왕 2년(837) 정옥, 허회 등과 함께 당나라에 가서 선지식을 두루 방문 문성왕 1년(837)에 귀국, 현안왕의 청으로 서울에 갔다가 다시 가지산 보림사로 가서 절을 중수, 현강왕 6년에 입적하다.

##### (2)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 남쪽에 위치한 雙溪寺는 신라 제 46대 문성왕 2년(840) 진감국사가 중국에서 茶 종자를 어렵게 가져와 주위에 심고 대가람을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그 전인 신라 제 33대 문성왕 21년(722)에 창건된 玉泉寺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국보 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진감선사대공탑비는, 진감선사가 77세(850)로 입적하자 신라 제 51대 진성여왕(887)이 큰 스님의 도력과 法力을 흠모하여 국사의 시호와 대공영탑이란 탑호를 내리고 탑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높이 13척, 길이 6.6자, 폭 3.3자인 비에는 7문의 楷書體 2,417자가 새겨져 있다.



이 탑비문은 명문장가이며 명필인 孤雲 崔致遠(857~?)이 짓고 쓴 것으로 우리나라 4대 金石文 중 첫째로 친다.

비문에는 ‘漢茗爲供者則’의 차팍 명(茗)이 있는데 대강의 뜻을 풀어 보면 ‘진감선사는 누군가가 그에게 중국차(漢茗)를 공양하면 가루로 만들지 않은 채, 돌 속에 넣어 삶으로 삶으면서 나는 이 맛이 어떠한가를 알고자 하지 않고 단지 배를 적실 뿐이다’고 기록되어 당시 세속에서는 흔히 가루차(抹茶)를 즐겨 마셨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진감국사 憲昭>신라 혜공왕 10년(774)~문성왕 12년(850)>은 신라시대의 스님으로, 속성은 崔, 법호는 혜소, 시호는 진감, 본관은 전주로 애장왕 5년(804) 당나라 창주에 가서 신감대사에게서 중이 되어 810년, 당나라 송산 소림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종남산에서 3년간 더 수도한 후, 흥덕왕 5년(830) 귀국하여 상주 장백사에 있다가 민애왕 1년(838) 왕에게서 憲昭라는 호를 받았다. 후에 소성왕의 이름을 피하여 조를 소로 고쳐 혜소라 했다. 그 뒤에 남령 기슭에 玉泉寺를 짓고 曹溪 六祖의 영당을 세웠다.

한편 진감국사 비문을 지은 최치원은 당나라에 있을 때, 사신의 배편으로 茶와 藥을 사서 家臣에게 부쳐 보냈다는 기록이 「桂苑筆耕集」卷 28에 있다.

\* 韓國茶文化研究會長

1) 朝鮮總督府編「朝鮮金石總覽」1978. 서울 亞細亞文化社刊. p.61.

2) 前掲書. p.66.

(3) 월광사 원랑선사 대보선광탑비(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

충북 제천군 한수면 동창리 월암산 기슭에 월광사지가 있다.

이 월광사에 있었던 원광선사 대보선광탑비는 사찰이 폐허가 되었으므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중앙국립박물관에 이전, 보관 중에 있다.

탑비 제작년대는 신라 진성여왕 4년(890)이며<sup>3)</sup> 보물 제 360호로 지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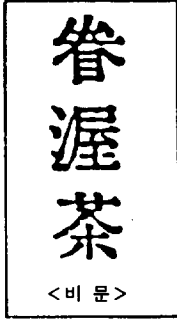
탑의 크기는 총 높이 393cm, 비신 225cm, 비폭 96cm이다. 탑비문은 보림사 보조선사 탑비명을 지은 金穎(김영)이 지었으며 글씨는 淳蒙(순몽)이 썼으며 茶와 관계되는 내용은 茶자의 뒷부분이 마모되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원광선사 大通<현덕왕 8년(816)~현강왕 9년(883)> 신라의 스님으로 자는 태용, 성은 박, 문성왕 7년(845) 聖麟(성린)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불도에 정진하다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慈仁에게 자극을 받고 분발, 직산에서 3개월 동안 선을 닦았다. 856년 당나라에 들어가 澄虛에게 사사, 黃梅의 心印을 받고 경문왕 6년(866) 귀국하여 월광사의 주지가 되었다. 시호는 원랑, 탑호는 대보선광이다.

(4) 성주사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聖住寺(址)는 신라시대의 고찰로 九山門의 하나인 성주학파의 故地이다. 이 절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어려서 공부하던 유적지로서 文昌侯 孤雲 崔致遠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국보 8호인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는 진성여왕 4년(890)에 세워진 것으로 최치원이 글을 짓고 그의 從弟이며 당대의 명필인 최인곤이 글씨를 썼다.<sup>4)</sup> 비신은 낭혜화상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의 골품제도과 당시 정치에 관한 일들, 그리고 고어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탑비의 크기는 높이 4.55m, 폭 1.57m, 두께 0.42m로 비문 중간 부분에 '體贊以茗醇使無虛月'이란 차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현안왕(재위 857~860)이 무염국사에게 멀리서 弟子禮를 펴고 사자로 하여금 茗醇(명발)을 가지고 빈달없이 내왕했다는 내용이다. 또 현안왕은 보조선사 체징에게도 차를 하사한 바 있다.

백월화상<애장왕 2년(801)~진성여왕 2년(888)> 신라의 승려로 호는 無住, 속성은 金, 시호는 낭혜, 무열왕 8대손으로 13세에 승려가 되었고 부석사의 석정에 가서 도를 닦고 中原 여러 곳으로 고승을 찾아 다니며 도를 닦았으며 그 이름이 널리 퍼져 동방 대보살이라고 불리었다.

문성왕 7년에 귀국하여 웅천의 오합사에 있으면서 禪道를 펴니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이에 왕이 성주사란 이름을 내리고 성주산문의 개조가 되었다.

지난 '87. 11. 22일 본회를 비롯 가예원, 명산다회, 명진회, 화정회 등 여러 茶會에서 합동으로 '낭혜화상께 드리는 헌다제'를 개최한 바 있다.

(5)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秀澈和尚栴伽寶月塔碑)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지리산 북쪽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 實相寺(구명 雲峯 深源寺)는 신라 42대 흥덕왕 3년(828)에 洪陟(證覺大師)이 九山禪門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데서 비롯된다.

보물 34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는 신라 진성여왕 7년(893)에 건립되었으며<sup>5)</sup> 조선 숙종 40년(甲午)에 중건되었다. 탑비는 높이 55cm의 方形臺石 위에 높이 1m 73cm의 비석이 있고 그 위에 75cm 높이의 개석이 올려 있다.

비문 끝부분에 '若茗若香'이란 글이 음각되어 있는데 판독하기가 무척 힘든 상태이다.

수철화상<현덕왕 9년(817)~진성왕 7년(893)>은 신라의 스님으로 홍척국사의 문인이다. 약관에 緣虛에게서 중이 되고 天宗에게서 經을 배웠다. 경주 복천사에서 潤福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경문왕 7년(867)왕에게 禪과 敎의 異同에 관하여 대답하고 심원사의 주지로 있었다.



3) 前掲書, p. 83.  
4) 前掲書, p. 72.  
5) 前掲書, p. 57.

(6) 칠장사 혜소국사 탑비(慧昭國師塔碑)

경기도 안성군 이죽면 두교리에 위치한 七長寺는 신라 선덕여왕 5년 개창되었다고 하나 확실한 것은 고려초 혜소가 지금의 비전자리에 흥제관을 세운데서 비롯되었다.

보물 488호인 혜소 국사비는 고려 문종 14년(1060)에 건립되었으며 글은 金顯이 짓고 글씨는 閔賞濟가 썼다.<sup>6)</sup>

비문 중간에 '上遺密□□□□□□□茶香勞之'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차를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혜소국사<고려 광종 25년(972)~문종 8년(1054)> 안성에서 태어나 光敎師 忠會에게서 삭발하고 17세때에 融哲師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을 쌓아 마침내 득도했다. 왕명으로 이 절을 중창하여 주석하다가 83세로 입적하였다.

탑비는 귀부와 구갑은 方형이고 비신 양쪽은 弄珠하는 雙龍을 그렸으며 이수에는 雲龍紋이 천각되었다(비신 중 7척5촌, 횡 5척2촌).

(7)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

강원도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의 法泉寺(址)는 신라 성덕여왕 24년(725)에 창건된 고찰로 고려 문종때 지광국사가 수도하던 곳이다.

국보 59호인 지광국사 현묘탑비는 고려 신종 2년(1085)에 건립된 탑비<sup>7)</sup>로 법천사 터를 외롭게 지키고 있다. 재료는 화강석인데 비신만은 점판암으로 되어 있고 비신의 양쪽 옆면에는 당초문을 돌려놓았으며 그 안에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의 용틀임을 조각했는데 특별한 양식이며 조각 솜씨가 神技에 가까울만큼 빼어나다. 비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4.55m, 비신의 높이는 2.97m, 폭은 1.42m에 이른다.

비문은 2,050자나 되며 고려때 대문장가 정유언이 짓고 글씨는 명필 安民厚씨가 썼고 조각은 이영보와 장



자춘의 솜씨이다. 비문 후반부에는 두 곳에 茶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上茶藥瑤等'과 '賜茶香油燭及原州倉' 등이다.

지광국사<고려 성종 3년(984)~문종 24년(1070)>는 자는 巨龍, 속성은 원주 原氏로 어려서 유학을 배우다 16세때 法泉寺의 관용대사에게 불경을 배웠으며 海安寺에 가서 중이 되었다. 고려 목종 7년에 승과에 급제, 大德이 되고 현종 12년에 重大師가 되었으며 뒤에 승통이 되었다. 문종 10년에 王師, 2년후에 국사가 되어 왕의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1070년 입적하였다.

그가 입적한지 15년만인 1085년에 탑비가 건립되었다.

(8) 홍왕사 대각국사 묘지(大覺國師墓誌)

경기도 개성시 興王寺에 있었던 대각국사묘지는 고려 숙종 6년(1101)에 건립된 묘지이다.<sup>8)</sup> 비문은 朴浩가 지었으며 비문중에 '茶香金帛以結信緣...'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각국사 義天(1055~1101)은 고려때 스님으로 우리나라 天台宗의 증흥조이다. 이름은 煦(후)이고 의천은 자이다. 문종의 네째 아들로 11세때 왕사 난원에게 중이 되어 영통사에 있었다. 15세때 승통이 되고 1085년 송나라에 가다. 哲宗帝가 계성사에 있게 하고 화엄법사 有誠을 불러 상중케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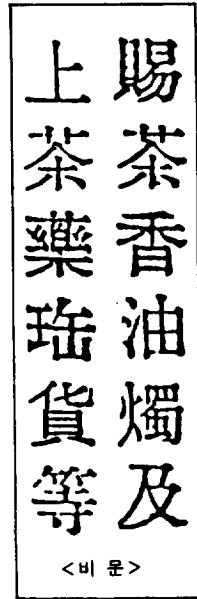
宣宗이 스님의 환국을 청하매 천태산 智者의 부도에 예배, 천태종을 본국에 증흥하려는 발원문을 고하다. 1086년 귀국하여 불경과 경서 1천권을 바치고 홍왕사에 있으면서 교정도감을 두고 요나라, 송나라, 일본에서 경전과 고서를 구하여 474여권의 서적을 수집 간행하였다. 숙종 6년(1101) 국사가 되고 10월 5일에 입적하다.

비를 영통사에 두고 또 남승산 선봉사에도 해동 천태시조 대각국사비를 세웠다.

(9) 금산사 혜덕왕사 진흥탑비(慧德王師眞興塔碑)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 기슭에 위치한 金山寺는 백제 29대 法王 원년(599)에 왕의 복을 비는 사찰로 세워졌지만 규모가 크지 못하였고 진표 율사가 중창, 대찰의 면모를 갖추었다.

보물 제 24호 지정된 혜덕왕사 진흥탑비는 고려 제 16대 예종 6년(1111)에 건립되었다.<sup>9)</sup> 금산사 경내 부도



6) 前掲書, p. 273.  
7) 前掲書, p. 283.  
8) 前掲書, p. 293.  
9) 前掲書, p. 296.

전에 위치하며 양면 비문이 43행에 77자씩 배열되었고 비면 연변에는 우아한 당초문이 둘러져 있다. 귀부와 비신은 완전하고 이수가 원래없이 조성된 듯하다. 탑비의 크기는 비신의 높이 2.78m, 폭 1.5m이다.

탑비문은 鄭允이 글씨를 쓴 것 같고 글을 지은 사람의 이름은 마모가 심해 판독하기 어렵다. 「해동금석원」 등에는 李顥이撰者로 되어 있다. 茶와 관계되는 내용은 후반부에 玩茶香等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차와 향 등의 물건을 좋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혜덕왕사<정종 4년(1038)~숙종 원년(1095)>는 문하시중 李淵의 아들로 개성의 남쪽 佛嶺里란 마을에서 태어나 11세때 해린국사에 得度하였다. 문종 15년 왕륜사의 五教大選場에 응시하여 大德의 法階를 받고 그 후 重大師, 三重대사, 僧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문종 33년 금산사 주지로 부임, 증창의 대업을 이룩, 대가람으로 발전시켰다. 또 진표율사의 사상을 계승하기 위하여 금산사 남쪽에 廣敎院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唯識法相 계통의 章疏 32部 353권을 교정개간하고 후학을 금산사에서 지도하다가 숙종 원년 입적하니 숙종은 혜덕왕사라 시호를 내리고 애도하였다.

(10) 문수원 중수비(文殊院重修碑)

강원도 춘성군 북산면 청평리, 오봉산 기슭에 위치한 淸平寺는 고려 제 4대 광종 24년(973)에 승현선사가 절을 초창하고 白岩禪院이라 하였다.

청평산 문수원은 李資玄이 해동명승지를 두루 살핀 후 芙蓉峯의 장엄미와 정속감, 仙洞의 뛰어난 자연경관, 부용산을 중심으로 산이 둘러싸여 분지형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굽이치는 계류의 맑고 시원한 산수경관 등 자연계의 제 景物을 바탕으로 하여 無의 경지, 정속을 주로한 禪庭

# 器玩茶香等物

<비문>

# 還山乃賜茶以茶香金繪

<비문>

三昧와 山石과 물로 속세를 차단하여 기력과 운율이 충만한 禪의 도장이며 庭苑이다. 이곳에 고려 인종 8년(1130) 문수원중수비를 건립하였다.

비문에 '以茶香金繪'라고 '還山乃賜茶'라고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비의 크기는 종 4척5촌, 횡 3척3촌으로 비신 상반부와 하반부는 찾을 수 없다.

또 眞樂公 중수 청평산 문수원기(題額)에 茶에 관계되는 兼賜茶藥等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보아 청평사 부근에 있던 문수원에는 이차현에 얽힌 차의 유적지임을 알 수 있다.

(11) 운문사 원응국사비(圓應國師碑)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산 기슭에 자리한 雲門寺는 신라 제 24대 진흥왕 21년(560) 禪僧이 득도하여 지은 고찰이다.

보물 316호인 원응국사비는 의종 원년(1146)에 건립된 비로 비면상부에 方廓題額을 마련하고 '원응국사비명' 6자를 해자로 종서하였다.<sup>11)</sup> 題額은 字經이 12cm이고 비문은 행서로 자경 1.5cm, 윤연선이 찬하였다.

비문중에 '送茶香藥劑'라고 기록되어 있어 여러가지 귀중한 물품중에 茶를 제일로 품급을 메기었음을 알 수 있다.

원응의 속명은 李學인데 송나라에 가서 天台敎觀을 배우고 귀국하여 조선 제 8대 예종의 숭앙을 받았고 인종 7년(1129) 운문사에 귀산하여 입적(1145)하였다. 이듬해 국사로 추증되고 시호를 원응이라 하였다.

운문사는 비구니들만의 수도장으로 건물은 한결같이 웅장하고 위엄이 넘치며 盤松과 주변의 송림은 한없이 푸르다.

(12) 장단 함유일묘지(咸有一墓誌)

경기도 장단군에 있었던 함유일묘지는 고려 명종 1년(1185)에 건립된 工部尙書 함공의 묘표이다. 비문에 '長日曠茶房禮賓主'란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sup>12)</sup> 誌石의

# 兼賜茶藥等

<비문>

# 送茶香藥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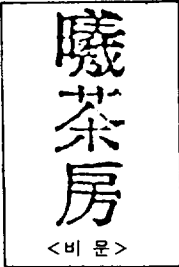
<비문>

10) 前掲書, p. 322.

11) 前掲書, p. 348.

12) 前掲書, p. 411.

크기는 종 1척3촌 횡 1척9촌으로 글자는 五分楷書로 쓰여 있다. 또 비문을 지은 사람은 李口撰으로 이름이 마모되어 알 수 없다. 여기에서 曦란 햇빛 또는 아침(朝)의 뜻이 있다. 그리고 뒷글자와 어울려 '茶房'이란 단어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금석문중 최초로 나타난 '다방'이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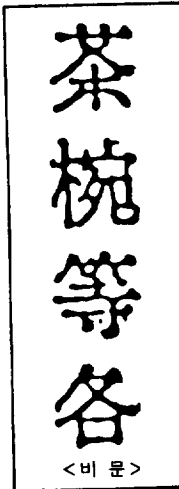


(13) 발연사 라승울사 장골탑비 (羅僧律師藏骨塔碑)

강원도 간성군 신북면 용제리에 위치한 鉢淵寺에 라승울사 장골탑비가 있다.

이 탑비는 고려 禪宗 2년(1199)에 건립되었으며<sup>13)</sup> 비문중에 '진표율사身骨藏立石(碑)銘'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라승울사와 진표율사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茶에 관계된 내용은 비문 후반부에 '靑口茶椀等各一口乃今得'이라고 기록되어 다른 금석문에서의 茶를 내리거나 마신 기록과는 대조적으로 '찾그릇을 구한 기록'이 특색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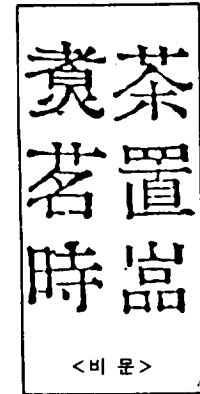


(14) 보경사 원진국사비 (圓眞國師碑)

경북 영일군 송라면 중산리, 내연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보경사는 '신라 26대 진평왕 25년(602) 大德 智明法師가 八面鏡을 못 속에 묻고 보경사라 하였다'고 금당탑기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 진성왕 22년(723) 도인 覺仁과 文遠이 오층탑을 조성하였고 고려 고종 원년(1224)에 원진국사가 중수한 후 1977년 채벽암 주지가 대규모 불사를 이룩,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물 252호인 원진국사비는 고려 고종 11년(1124)에 세운 비로 당시의 명문장자인 李公老가 짓고 글씨는 당대의 명필과 金老人이 썼다.<sup>14)</sup>

비문에는 특이하게 茶자와 茗자를 혼용하고 있다. 즉 '東峯煮茗時'와 '一境茶置時'이 바로 그것이다. 원진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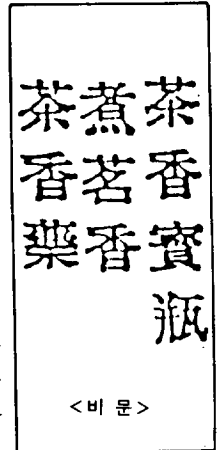


는 속성은 申씨이며 휘는 承邇요, 고향은 上洛山陽人이다. 13세때 봉암사 洞純師로 부터 낙발을 받고 명산을 순방하면서 금산사, 금강산 유점사에 머무르신 후 三重大師가 되어 보경사 주지가 되었다. 비석을 등에 업고 마치 기어가듯, 살아 움직일듯한 거북조각이 섬세하고 묘하다.

(15) 송광사 진각국사 원소탑비 (眞覺國師圓沼塔碑)

전남 승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에 자리한 송광사는 신라 말엽 혜린대사가 작은 암자를 짓고 吉祥寺라 한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된 '진각국사비명'에 보면 '茶' 글자가 두 곳에 '茗' 글자가 한 곳에 나온다. 즉 '煮茗香傳'과 '茶香寶瓶'·'茶香藥餌'라고 기록, 문수원 증수비와 함께 3개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고려 고종 22년(123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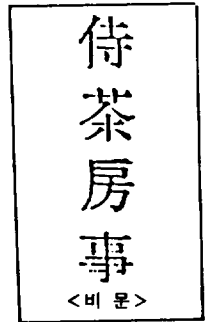
진각국사 혜심(慧諷)(1178~1234)은 고려 후기의 고승으로 성은 崔, 호는 無衣子, 시호는 진각국사, 화순사람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한학을 공부하여 1201년 사마시에 합격 太學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조계산에 들어가 보조국사 지눌 밑에 중이 되었다. 보조국사가 죽은 후, 왕명에 의해 修禪寺에 들어가 보조국사의 자리를 맡아 조계종의 2세가 되었다. 유학에도 통하여 유·불이 다를 바 없다고까지 했다.

(16) 안심사 지공나옹 사리석종비 (指空懶翁舍利石鐘碑)

평북 안변군 북신현면 하행동, 묘향산 기슭, 안심사에 고려 우왕 10년(1,384)에 건립된 지공나옹 사리석종비가 있다. 이 비의 비문은 李□□가 짓고 글씨는 權□가 쓴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모가 심해 알아 볼 수 없다.<sup>16)</sup>

이 비는 높이 3척8촌, 폭 2척으로 후면에 '侍茶房事廉廷秀'란 글이 기록되어 있다. 나옹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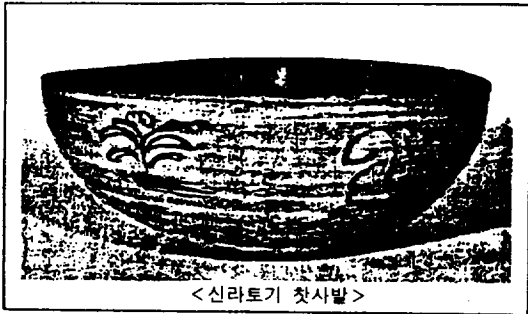


13) 前掲書. p. 426.  
 14) 前掲書. p. 449.  
 15) 前掲書. p. 460.  
 16) 前掲書. p. 519.

려 공민왕 때 승려로 속성은 牙, 호는 나홍, 문경군의 대승사 요연선사에게서 승려가 되었고 중국 서천의 지공화상을 따라 心法의 正脈을 받아왔다. 지공, 무학과 함께 三大和尚으로 칭하고 있다. 우왕 2년 왕명을 받고 밀양의 영원사로 가다가 여주의 신흥사에서 사망, 이색이 글을 지어 세운 비와 부도가 회암사에 남아 있다.

(17) 신라토기 찻사발(안압지출토)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된 신라토기인 '土器黑書盤'에 '茶'자가 작고 희미하게 쓰여져 있다.



<신라토기 찻사발>

雁鴨池는 인조 연못으로 문무왕 14년(674)에 만들어졌다.<sup>17)</sup> 3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우선 궁궐을 확장시켜 더욱 위엄을 갖추었을 것이며 이 안압지는 東宮의 정원이었다. 이 찻사발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안압지에 빠뜨려 오랫동안 진흙속에 묻혀 붓으로 쓴 글자가 천년이 넘도록 선명히 남아 있는 점과 신라후기에 발달하기 시작한 도자기보다 전에 만들었으리라 추정되는 토기에 '茶'자가 쓰여져 있어 신라시대 궁중에서의 음다 풍을 짐작케하고 년대를 보다 앞으로 소급시킬 가능성을 시사해 준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안압지는 1974년부터 발굴, 조사되고 그 조사에 따라 1980년 9월 원형을 되살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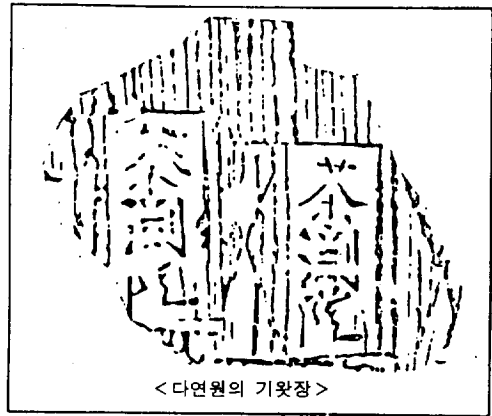
용기의 크기는 높이 6.7cm, 입지름이 16.8cm이다.

(18) 창림사지 다연원(茶淵院)

경주 昌林寺터에서는 '다연원'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는 기왓장(瓦當)조각이 출토되었는데, '茶'자가 뚜렷이 양각되어 있다.

경주 포석골에는 10여개의 절터가 유명하다.

이 창림사터에 거대한 석탑이 있는데 이 탑에 허물어졌을 때 조선조말 서예가 김경희가 동판에 새긴 「無垢淨塔願記」가 발견되는데 이에 의하면 신라 문성왕 17년(855)에 왕의 명령으로 이 탑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연원의 기왓장>

이곳에서 발견된 비로자나불 석상은 현재 경주박물관에 옮겨져 있는데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茶道學」에서 김명배 교수는 '이것은 안동의 제비원이 제비사였듯이 다연사였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III. 기록조사의 결과

1. 기록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기록조사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시대별 조사자료)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	조선기	합계
17점	42점	156점	39점	254점

(금석문 종류별 조사자료)

碑塔碑	刻字石刻	墓誌	鐘記	鐘銘	造像記	巾童記	
104 점	25	66	13	9	7	6	
塔記	字鏡	燈記	記	柱記	盒記	陵表	闕記
6	2	3	2	1	1	1	1
照誌	廟誌	棺記	諡冊	石標	碣		合計
1	1	1	1	1	1		254 점

2. 기록조사의 결과

기록조사의 결과 ① 시대별로는 신라기에 5점, 고려기에 13점이며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미완성)에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17) 金明培, 「茶道學」 1984, 學文社, p.192.

18) 前掲書, p.258.

② 금석문의 종류별로는 탐비종류가 10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墓誌와 碑가 각각 2점, 나머지 중수비 1, 석종비 1, 토기, 와당 1점이었다.

③ 또한 대상별로는 고승·대덕이 14건, 관료·유학자가 1건, 기타 중수비, 토기, 와당 등이 3건이었다.

④ 차에 대한 명칭은 육우의 「다경」에 '첫째는 다(茶)요, 둘째는 가(檟)요, 셋째는 설(藪)이요, 넷째는 명(茗)이요, 다섯째는 천(薺)이다. 주공은 말하기를 檟는 쓴 차라 하고, 桴는 쓴 것은 다(茶), 늦게

만 것은 茗이라 하고 혹 일설에는 薺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茶'와 '茗'자만을 사용하였다. 금번 조사에서 '茶'자는 19건, '茗'자는 5건(신라 3, 고려 2)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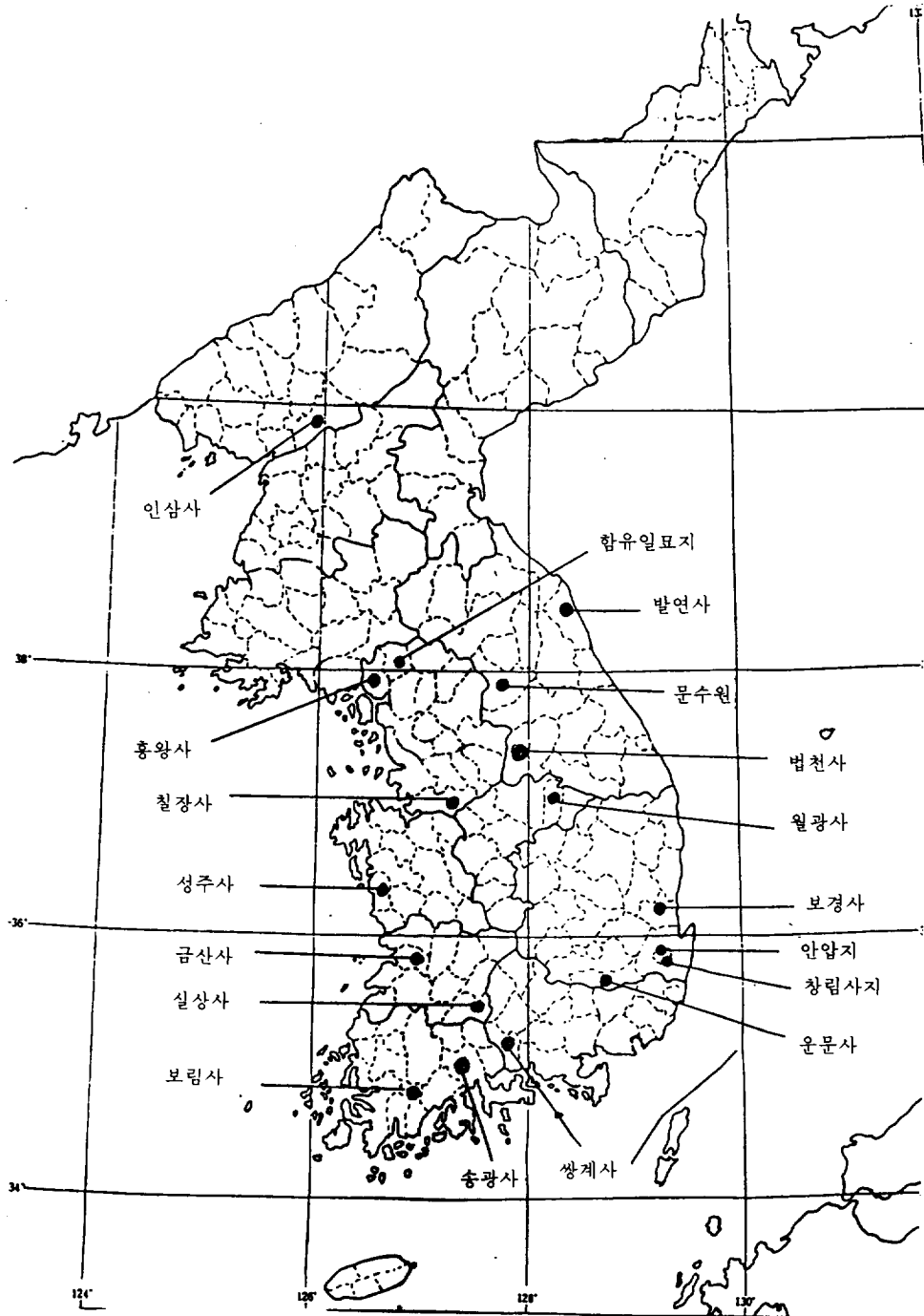
⑤ 지역별 금석문 분포

북한 지역 4개처와 남한 전역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茶'자가 기록된 금석문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참조).

금석문별 기록조사표 일람

순위	명 칭	위 치	건립연대	생존연대	비문내용	찬·서	비고
1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탐비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남쪽	884년 (현강왕 10)	804~ 880 (신라)77세	茶 藥	김영 찬 김원 서	보물 158
2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탐비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지리산 남쪽	887년 (진성여왕)	774~ 850 (신라)77세	漢 茗	최치원 찬·서	국보 47
3	성주사 낭해화상 백월보광탐비	충남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남쪽	890년 (진성여왕 4)	801~ 888 (신라)88세	茗 醇	최치원 찬 최인근 서	국보 8
4	월광사 원랑선사 대보선광탐비	충북 제천군 한수면 동창리 월암산(국립중앙박물관)	890년 ( )	816~ 883 (신라)68세	瀝 茶	김영 찬 순몽 서	보물 360
5	실상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탐비	전북 남원군 산내면 입석리 지리산 북쪽평지	893년 (진성여왕 7)	817~ 893 (신라)77세	若 茗	.	보물 34
6	칠장사 해소국사 탐비	경기 안성군 이죽면 두교리 칠장산	1060년 (문종 14)	972~1054 (고려)83세	茶 香	김현 찬 민상재 서	보물 488
7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탐비	강원 원성군 부론면 법천리	1085년 (신종 2)	984~1070 (고려)87세	茶 香 茶 藥	정유언 찬 안민후 서	국보 59
8	홍왕사 대각국사 묘지	경기 개성시	1101년 (숙종 6)	1055~1101 (고려)47세	茶 香	박호 찬	.
9	금산사 혜덕왕사 진흥탐비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 서쪽	1111년 (예종 6)	1038~1095 (고려)58세	茶 香	정운 서	보물 24
10	문수원 중수비	강원 춘성군 북산면 오봉리 오봉산 기슭	1130년 (인종 8)	(이자현) (고려)	茶 香 茶 藥	(賜茶)	.
11	운문사 원용국사비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산 기슭	1146년 (의종 1)	?~1145 (고려)	茶 香	.	보물 316
12	발연사 라승율사 장골탐비	강원 강성군 신북면 용계리 금강산 기슭	1199 (선종 2)	(고려)	茶 椀	.	.
13	咸有一菴誌	경기 장단	1185년 (명종 15)	(고려)	茶 房	崔口 찬	.
14	보경사 원진국사비	경북 영일군 송라면 중산리 내연산 동쪽	1224년 (고종 1)	(고려)	煮 茗 茶 置	李公老 찬 김인로 서	보물 252
15	송광사 진각국사 沼塔碑	전남 송주군 송광면 신평리 조계산 서쪽	1235년 (고종 22)	1178~1234 (고려)57세	茗 香 茶香(2)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16	安心寺 指空懶翁 사리석종비	평북 영변군 북신현면 하행동	(우왕 10)	(고려)	茶 房	李口口 찬 權口 서	
17	안암지출토 신라 토기 찻사발	경북 경주 국립박물관 소장	647~? (문무왕 14)	(신라)	貞言茶		
18	창립사지 다연원	경북 경주시(경주 근화여고 최귀주소장)	김생~? (문성왕 17)	711~ 791 (신라)	茶淵院	김생(?) 서 (비석글씨)	





IV. 結 論

본 연구는 金石文에 나타난 '茶'자에 대하여 유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히 또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미연구분야이며 또 자료가 방대하여 일시에 연구를 종료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방대한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시대별,

지역별, 종교별, 의식별, 용기별 등등 종합 분석평가하여 보다 신뢰성 있고 의의있는 결론을 추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약 조건으로 16개의 碑文과 1개의 용기, 1개의 瓦當만을 조사·정리하였을 뿐으로 研究의 초보적인 단계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밀도있는 연구를 위한 문제제기 및 기초자료 조사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록적인 면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금석문중 최초로 쓰여진 '茶'자는 전남 장흥군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로 서기 884에 건립되었다. 다음으로 쓰여진 것은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중의 '茗'자이다. 이 '茗'자는 茶와 같은 뜻이기는 하나 '일찍 떠낸 것은 茶이고, 늦게 떠낸 것은 茗'이라고도 풀이하여 글을 지은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2. 총 18개의 금석문에 대한 자료중 문수원 중수비와 안압지 출토 찾그릇, 함유일 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3. 불교와 관련된 금석문 중 모두가 고승대덕의 탑비였다. 또 고승대덕은 거의 왕실과 관련이 있으며 왕으로부터 차를 하사 받았으며 또 이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다.

4. 차, 향, 금, 구슬, 면, 약 등 여러가지 귀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말이 茶임을 미루어 귀중품중에 차가 최상급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다기에 대한 기록은 발연사·라승울사장골탑비와 안압지 출토 찾그릇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茶에 대한 기록이었다.

을 말하는데 갑골류, 도기류, 鐵幣류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금석문 251점 중 '茶'자가 기록된 것을 조사 연구하였던 바 비문 16점, 와당 1점, 도자기 1점 이었으며 시대별로는 신라시대 5점, 고려시대 13점 이었으며 최초로 기록된 茶자는 전남 장흥군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884년)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불교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금, 향, 구슬 등 여러가지 귀중품 중 茶를 최상의 것으로 취급하였으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茶文化이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朝鮮總督府編 「朝鮮金石總覽」 上·下권, 亞細亞文化社, 1976.
2. 劉燕庭編 「海東金石苑」 上·下권, 亞細亞文化社, 1976.
3. 李吳編 「大東金石書」 아세아문화사, 1976.
4. 李吳編 「韓國金石文追補」 아세아문화사, 1976.
5. 한국금석전서 보조자료 IV, 「三韓金石錄」 아세아문화사, 1981.
6. 黃壽永編 「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7. 한국학기본총서 12집 「朝鮮金石文總覽」 (上), 景仁文化社, 1974.
8. 任昌淳著 「韓國金石集成」 I, 一志社, 1984.
9. 李亨求·朴魯姬著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 1986.
10. 경기도청 「京畿金石大觀」 1982.
11. 許興植編 「韓國金石全文」 上·中, 아세아문화사, 1984.
12. 기타 탁본 자료.

### V. 요 약

金石文이란 금속이나 돌로 만든 각종 유물에 기록된 銘文

— 序 —

## 普照禪師彰聖塔碑

翻 譯

新羅國 武州 迦智山 寶林寺 諡 普照禪師 靈塔 羣銘芻序 朝請郎  
守定辺府 司馬 賜 緋魚袋 位

金 穎, 奉 教書

聞夫禪境 玄寂正覺 希夷難知 如空如海 故 龍樹師弟之尊者 俞芭  
蒼於西天 弘忍惠能之祖師 譚醍醐於震旦 盖掃因果之跡 離色相之鄉  
登大牛之車 八罔象之域 是以知光遠照 惠澤遐流 灑法雨於昏衢 布慈  
雲於覺路 見空者一息 而越彼却山 有為則永劫 而滯于黑業 矧乎末法  
之世 像教紛紜, 釋契真宗 于持偏見 如擊水求月 若押繩繫風 徒有勞  
於六情 豈可得其至理 其於衆生 為舍那 為衆生衆生 不知在舍那 法  
界之中 縱橫造業 舍那亦 不知衆生 ○包含之內 湛然常寂 豈非迷耶

知此迷者 大不迷矣 知其迷者 惟 我禪師乎 或謂此說 為護落之言  
乎 道經云 上士聞道 崇而奉之 中士聞道 知存 若下士者 聞道撫掌而  
嘆不嘆不足以為道也 此之謂矣 禪師 諱 體澄 宗姓金 熊津人也 家承  
令望 門襲仁風 是以 慶自天鍾 德從鬱降 孝義 旋表 於鄉里 禮樂  
冠蓋於 軒裳者也

禪師 純體之年 尊夫人 夢日輪駕空垂 光貫腹 因之驚寤 便覺有懷  
及遺 昔月 不之誕生 尊夫人 追尋瑞夢 誓禱良因, 膳徹修飲 斷醪醴  
胎訓淨○ ○事福田 由是 克解○孽之優 允叶弄璋之慶 禪師 貌雄岳  
立 氣潤河靈 輪齒自然 金髮特異 閭里聲歛 親戚感驚 從襁褓之年 宛  
有出塵之趣 登齠齔之歲 永懷捨俗之緣 二親 知其富貴難留 財色莫繫  
許其家出 遊學榮杖 尋師設花山 勸法師座下 聽經為業 拮衣請益 風  
夜精勤 觸目無遺 歷耳必記 常以陶冶驕鄙 藻練僧儀 積仁順而 煩惱  
蜀除 習虛靜而 神導妙用 超然出家 不羣 後以 大和丁未歲 至加良  
峽山普願寺 受旻○一人壇場 七宵行道 俄有異雉 忍尔馴飛 卜○古者  
昔向陳倉 用顯霸王之道 今來寶地 將興法主之徵者焉 初 道儀大師者  
受心印於西堂 後歸我國 說其禪理 時人 雅向經教 與習觀存神之法未

臻其無為運之宗 以為鹿誕不之崇重 若達磨不遇梁武帝地 由是知時未  
 集 隱於山林 付法於廉居禪師 居雲山億聖寺 傳祖心關師教 我禪師往  
 而事焉 淨修一心 求出三界 以命非命 以軀禪師 察志氣非偶 素槩殊  
 常 付玄珠授印 至 開成二年丁巳 與同學 真齊 靈會等 路出滄波 西  
 人華夏 參善知識 歷三五州 知其法界 嗜欲共同 性相無異 乃日 我祖  
 師耶說 無以為加 同勞遠 正足意與 五年春三月 隨平盧使 歸舊國 化  
 故鄉 於是檀越 傾心釋教 繼踵百川之朝龍壑 群嶺之宗鷲山 未足為喻  
 也 遂次武州 黃 蘭若 時 大中千三祈 龍集于析木之津 憲王大王 即  
 位之年也 大王聆風仰道 勞于夢魂 願闢禪非 請入京 穀夏六月 教遣  
 長沙縣 副守 金彥卿 賁茶藥迎之師 以處雲巖之際 屬結○之月 託淨  
 名之病 陳六祖之辭 冬十月教又遣 道俗使 靈巖 都僧正 連訓法師 奉  
 宸馮瑄等 宣諭 綸二月 請移 迦智山寺 遂飛金錫 遷入山門 其山則元  
 表大德之舊居也 表德以法力 施干有政 是以 乾元二年 特教 植長生  
 標柱 至今存焉 宣帝十四 中春 副守 金彥卿 風陳弟子之禮 嘗為入室  
 之賓 減損俸出私市 鐵二千五百斤 鑄盧舍那一軀 以莊禪師耶居梵宇  
 教不望水里南等宅 共出金一百六十斤 祖二千斛 助充裝饗 功德寺隸宣  
 教者 咸通辛巳歲以十方施資 廣其禪師慶 畢功日 禪師莅焉 虹之與蜺  
 貫徹堂內○ 輝耀室渥 彩燭入此乃堅牢告禪娑迦表瑞也 廣明六年三月  
 九日 告諸依舊 吾今生 報業盡 就木地成 汝等 當善護持無至 忘 至  
 孟夏中旬二日 雷電一山 自己酉庚戌十三日子夜 上方地震 及天曉 右  
 協郎終 亨齡七十有七 僧臘五十二 於是弟子 英惠 清奐等 八百餘人  
 義深考姚 情感乾坤 慕梵號聲 動溪谷 以其○○四日 葬於王山松臺  
 壘塔官壓 嗚呼禪師 名留於此 魂魄何之 生離五濁 超十八空樂寂滅而  
 不跡遺法林而永季 ○唯濟生靈於界實 亦裨聖化於三韓 禮云 別子為  
 祖 康成涇云 子若始來 在此國者 後世以為祖 是以 達摩為唐 第一祖  
 我國則以儀大師為一祖 居禪師為二祖 我師第三矣 ○和三年春三月十  
 五日 門人 義車等 纂集行狀 遠詣吾居 請建碑銘 用光佛道 但以供奉  
 宸衷 敢避文林嗤哂 詞曰 禪心不定子 至理蹄空 如治瑠璃子 在有無中  
 神莫通照子 鬼其敢衝 用無不足子 施之無窮 功盡恒沙子 妙用靡終

察廓舍那 苞育萬物 蠢蠢衆生○舍那 ○二既同体 復誰是佛 迷之又迷  
道乃斯畢 其二 大哉禪師 生乎海域克鍊著○精修惠德觀空離空 見色  
非○ 稱為心印 難名耶得 其三 有為世界 無教因緣 境來神動 風起波  
翻○調 馬動伏心猿 以斯為寶 施于後賢 其四 乘波若舟 涉愛河水  
彼岸既登 唯佛足○ 牛車已到 火宅住燬 法相雖存哲其萎 ○ 其五叢  
林無主 山門若空 錫於衆席 鉢遺群龍 唯餘香火 追想音容 刊此貞石  
紀法將雄 其六 中和四年 歲次甲辰 季秋九月 戊子朔 旬有九日 丙  
子建 從頭 第七行禪字已下 弟子 前兵部 侍郎 入朝使 殿中大監 賜  
紫金魚袋 金彦卿 興輪寺 僧 釋賢賜 刻字。

## 普照禪師彰聖塔碑文

翻 譯

(新羅 憲康王(844年)에 建立되었으며 普照禪師의 1代 略歷과 彰聖行蹟을 記錄하였음)

新羅時代 武州(至今 光州),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 迦智山아래 寶林寺가 있었다. 이 절에 謚號를 普照禪師라고 부르는 분의 靈塔이 우뚝 서 있다. 이 塔에는 序文과 六個條의 銘文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은 朝請郎 守定邊府 可馬金類이 緋魚袋를 받고 王命을 받들어 이 碑文을 지었다.

禪境이란 玄妙하며 寂寞하고 深奧한 理致를 지니고 있으니 그 理致는 귀에 들리지 않으며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여 그 貌樣이 虛虛蒼蒼한 空中이나 無邊大海와 같아서 奧妙한 眞理를 알기 어렵다. 옛날 龍樹師라는 분은 西天에서 芭蕉를 알았고 惠能祖師의 苦行을 體得하여 東方에 해뜨는 아침 深奧한 理致를 論說하였고 因果輪回의 자취에서 떠나고 온갖 彩色들이 誘惑하는 俗世에서 떠나 큰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蒼空에 올라 큰 道를 깨달아 無我之境에 들어갔다. 是以로 祥瑞로운 빛이 멀리 비치고 惠澤이 아득히 흘러서 俗世사람들께 法雨를 뿌려주고 修道하는 길에 慈雲을 펼쳐 주었다.

道에 이르지 못한 者 한숨에 저 언덕을 넘을지라도 物欲에 永劫도록 塵世에 머무르게 하니 하물며 末世사람들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無視하며 眞實한 宗教를 편벽들게 보기만 하니 마치 강물을 헤치고 달을 건지려고 하거나 노끈을 꼬아 바람을 매어 잡을려고함과 같아서 耳目口鼻心情的 大情만 수고롭게 할 뿐이니 어찌 가히 그 至極한 理致를 얻으리오, 衆生들은 그 佛道가 있는 줄을 모르고 法界 속에서 살면서도 縱橫으로 수선스럽게 서두르니 부처님 역시 衆生을 알아 줄리 없다. 佛道란 至近한 곳에 있으나 湛然하고 항상 고요하여 형상이 없으니 어찌 “迷”를 아는 者는 크게 “迷”에서 벗어난 이니 그 “迷”를 아는 이는 오직 우리 禪師인저!

혹 헛된 말이라고 할 줄 모르나 道經에 이르기를 上士는 佛道를 듣고 感動하여 놀이 받들며, 中士는 佛道를 듣고 道가 存在함을 認知하며 下士는 佛道를 들으면 손뼉을 치면서 웃는 이도 있고, 웃지 않은 이도 있다 하였으니 이는 말할 것이 못된다.

禪師의 諱는 體澄이요, 宗姓은 金氏이며 熊津人이라, 名門家 家統을 이어받아 그 집에는 仁慈로운 風習이 집

안에 가득하여 慶事로움이 하늘로부터 내리고 天德이 뉘뉘리를 조차 내리니 그 孝道로움과 義로움에 있어서 는 鄉里에 旋表가 되며 禮樂에 있어서도 國中에서 으뜸 갈만 한 분이니라.

禮師께서 몸을 이 世上에 依託하실 때 尊夫人께서 큰 꿈을 얻으셨다. 그 꿈에 貴人이 日輪을 타고 하늘을 날으는데 日輪으로부터 내리는 曙光이 어찌나 燦爛한지 그 빛이 尊夫人의 腹中을 貫通하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 깨어보니 문득 잉태하였음을 깨달으셨느니라. 10個月을 넘겼어도 解産되지 않으니 尊夫人께서는 다시 상서로운 꿈을 청하시며 부처님께 훌륭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시도록 빌며 반찬과 飲食을 가리고 술과 단술을 끊으시며 起居動靜을 淨正히 하시면서 胎訓에 힘써 왔으며 남몰래 복을 많이 받을 아이가 태어나도록 빌었다. 이로인하여 解産하신데 큰 苦通을 보시지 않고 玉童子를 낳은 慶事를 보게 되었느니라.

이와같이 태어난 禪師의 容貌은 뉘뉘리 솟은 것 같이 雄莊하고 氣品이 潤闊하며 神靈스러운은 河海와 같았으며 태어날 때부터 齒牙가 모조리 나 있고 머리카락은 금빛이 燦爛하여 特이한 貴骨의 玉童子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소리내어 感歎하고 親戚들도 驚歎해 마지 않더라. 襁褓에 쌓여 있을 때부터 티끌 世俗을 完然히 벗어났으며 8세에 이르러서는 世俗과 永遠히 因緣을 끊으셨느니라, 禪師의 兩親께서는 富貴로도 달랠 수 없으며 財色으로도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으시고 出家하여 修道할 것을 쾌히 許諾하셨느니라.

이리하여 禪師께서는 榮杖을 짊고 스승을 찾아 設花山 勸法師의 弟子가 되어 學問을 닦게 되었다. 佛經講論을 들으실 때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시고 더욱 有益한 講論을 해 주실 것을 請하시며 深夜 曉星 學問에 精勤하셨다. 그의 聽力과 智德이 뛰어나서 한번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으시면 記憶하셨느니라.

항상 거칠고 추잡한 俗世의 먼지와 메를 털고 一心의 陶冶에 精進하셔서 僧儀를 다듬어 문채를 내고 어질고 順和한 體德을 쌓아 俗世의 煩惱에서 깨끗히 벗어나 虛虛하고 靜靜한 理致를 익히고 神靈스러운 敎理를 神妙하게 治用하시니 超然히 出家하여 俗世의 무리들과 섞이지 아니한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其後 大和 了未년에 忠南 瑞山 加良峽山普願寺에

들어가 하늘이 주신 一人道場에서 七夜동안 道를 닦을 때 홀연히 奇異한 靑이 날아들어 옛날 陳倉을 向하여 霸王의 道를 甦던 일을 回想케 하더니 이제 寶林寺에 와서 장차 佛法을 일으킬 주인이 될 것을 兆徵함이니라.

○처음에 西域에서 道義人師(신라의승 784년)「선덕왕 5년」唐에가 智藏의 제자가 되어 그 불법을 물려받고 道義라 改名 821년 귀국「迦智山派」의 開祖가 되어 禪宗의 奧妙한 眞理를 심득하여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 禪理를 設敎하셨다. 그 當時 사람들은 옛날부터 儒敎를 읽고 있었기 때문에 無爲하고 神妙한 禪敎의 理致를 알지 못하고 나만 佛敎를 虛無寂滅한 邪敎로 取扱하고 그 信者들을 異瑞視하여 道를 崇尚하지 않고 멀리하니 達磨가 梁武帝를 만나지 못함과 같았었으니라.

이로 말미암아 世人들이 따라오지 못함을 알고 山林에 隱居하여 廉居禪師에게 佛法을 傳해 주셨으니 廉居禪師는 雲山 億聖寺에 살면서 道義祖師의 禪心을 이어 받아 祖師의 禪心을 禪理로 弟子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이때 우리 禪師 普照께서 廉居禪師를 찾아가 섬기고 그 妙法을 傳受하였다. 弟子가 된 普照禪師께서는 一心으로 禪理를 淨修하여 天地人 三界에서 衆生을 救濟할 道理를 연구하였다. 廉居禪師는 禪敎를 使命感으로 몸소 느끼시고 普照스님의 志氣를 세심히 살펴보시니 보통 僧侶보다 뛰어났음을 알고 玄珠와 心印을 傳해 주셨느니라. 開成 2年 丁巳年에 同門 貞育 虛會 등과 함께 滄海를 건너 서쪽으로 華夏에 들어가 35州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名師를 찾아 知識과 禪法을 배우고 體得하였다. 이들은 修道 過程에서 嗜慾과 苦樂을 같이 하였으며 또한 性相과 行實에 있어서도 조금도 다를 바 없더라.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 廉居禪師의 禪敎와 다름이 없어 더 배울 必要가 없으니 어찌 遠路他鄉에서 수고롭게 지내리오 하고 5年 春 2月 平盧使를 따라 故國에 돌아와 故鄉사람들을 敎化 하였으니라.

이리하여 禪法에 精力하여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힘썼으니 百川이 河海에 흘러들고 群嶺이 鷲山을 섬긴 것에 족히 비유하기 어렵더라. 드디어 武州 黃壑의 蘭若寺에 왔으니 때는 大中 千三歲로 歲星이 板木(음11月)의 津에 걸렸으니 新羅 47代 憲安王이 卽位하신 이듬 해니라.

大王께서 普照스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禪道를 높이 우리시키고 서울에 오셔서 禪窟(佛門)를 열어줄 것을 請하였으며 제차 夏 6月에 長沙縣 副守 金彦卿을 보내어 茶藥으로 禪師를 맞아 雲巖에서 6祖의 가르침을 배물라 하셨으며 다시 冬 10月에 道俗使 虛巖과 都僧正 連訓法師 등을 보내어 請하셨다. 禪師께서는 뜻하는 바 있어서 王命을 받들어 慶州에 갔다가 다시 長興 迦智山

下 寶林寺에 移居할 것을 大王에게 請하시고 金錫(지팡이)을 날리시고 山門으로 들어서니 그곳인즉 元表大師가 거쳐하셨던 옛터더라. 禪師께서는 佛法의 힘으로 德을 펴시고 또한 政事에 그 德을 배부셨으며 乾元 2年 特別한 敎示를 내리시고 長生標(大雄殿 右側 앞 뜰에 禪師의 金錫을 거꾸로 심어둠)를 심어 두시니 至今에 傳해 오니라(6.25 動亂 때 燒失됨).

宣帝 13年 中春에 副守 金彦卿이 弟子의 禮를 올리고 찾아오는 손님을 위하여 俸給을 덜고 私財를 털어내어 鐵 2,500斤을 사들여 鐵造毘盧舍那座佛一軀를 鑄造하여 禪師께서 居處하신 곳에 安置하여 莊嚴하게 꾸미고, 金 160斤과 租 2,000石을 내어 功德寺를 꾸며 弟子를 가르치게 하였다. 咸通 辛巳年에 十方으로 施主를 얻어 禪師의 거처한 곳을 넓혔다. 工事를 끝내고 禪師를 모셔오니, 五色燦爛한 무지개가 堂內에 가득하고 輝耀燦爛한 빛이 문에 들어오니 이는 장차 상서로운 징조더라.

廣明 6年 3月 9日 弟子들에게 告해 말하되 “내 이제 평생에 佛業을 다하여 죽을 때에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절과 禪法을 잘 지키고 게을리 말라”고 타이르시더라.

이해 초여름 22일에 雷電이 온 산을 震動하고 己酉 12日부터 庚戌 13日 한밤중에 上方에서 地震이 일더니 날이 밝아오자 忽然히 入寂하시니라. 享年이 77才요. 僧臘으로는 52年이더라. 이에 弟子 英惠 淸奘 등 800餘人이 禪師의 義理와 深奧한 說敎를 父母와 같이 欽慕하고 하늘 땅과 더불어 그 깊은 情宜에 感動하여 呼哭하니 그 哭聲은 溪谷을 震動시키더라.

5月 4일에 此山 松台에 葬死하고 塔을 세워 魂靈을 편안케 하였다.

슬프도다! 禪師여! 그의 名聲은 이 世上에 머물러 있건만은 魂魄은 어느 곳으로 가셨나요. 살아서는 獨世를 떠나 18空을 超越하여 항상 寂滅하심을 여기시고 禪法을 永世에 남기시니 어찌 生靈들만 俗世에서 救濟하였을 뿐이리오. 진실로 三韓全域을 聖化하셨던 큰 功德을 남기셨느니라.

禮書에 이르되 뛰어난 사람이 祖上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康成經이 말하기를 자네가 만약 이 나라에 처음으로 와서 禪敎를 펴면 後世에 祖上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是以로 達磨는 唐나라에 第一祖요 우리나라에서는 道義大師가 第一祖이며 廉居禪師가 第二祖요, 普照禪師가 第三祖이니라. ○和 3年 春 3月 15日 門人 義車 등이 普照禪師의 遺稿와 行狀說敎를 收纂하여 멀리 내게 와서 碑銘을 청해 왔다. 불도를 빛내고자한 國王의 精神을 받들었을 뿐이니 어찌 文士들의 웃음거리를 피하리오! 詞曰 禪心은 一定치 아니함이며! 至極한 理致는 空中

과 같도다. 琉璃를 다스림과 같음이어! 있는것 같으면서 보이지 않도다. 禪明이 막 通照함이어! 邪鬼가 어찌 僣犯하리오! 法道의 넉넉함이어! 배품도 다함이 없도다. 功은 恒沙를 다함이어! 妙用이 끝이 없도다. 가 其一이오. 禪道를 살피건대 萬物을 다같이 慈悲롭게 기르거늘 벌레와 같이 꿈틀거리는 衆生들은 道를 어기도다. 둘이 이미 한몸이 되었으니 다시 뉘가 부처일까. 道는 회미하고 또 회미한 가운데 眞理가 있으니 其二요. ○偉大하도다 禪師여! 海城에서 태어나 能히 禪道를 練磨하고 恩惠로운 德을 精誠으로 修練하여 “空”을 보고 “空”을 떠나며 彩色을 보아도 물들지 않으니 이를 “心印”이라 일컬은데 얻은바를 이름 짓기 어려움이 其三이요. ○이 세상에는 일정한 현상이 없어 因緣을 맺을 수 없어서 仙境에 들어가니 神明이 움직이고 바람이 일어 물결을 뒤집힌다.

부지런히 “心印”을 길러 보배로 삼고 後世의 어진이에게 배품이 其四요, 물결 탐을 若舟같이하여 河水에서

衆生을 건져 사랑하도다. 언덕을 이미 오르니 오직 부처님이 오셨도다.

牛車는 이미 이르렀으며 火宅은 불타 없고 法相은 비록 남아있으나 어진분은 간 곳이 없으니 其五요, 此寶林寺에 主人이 없어지고 山門이 허전하나 錫杖은 衆席에 꽂혀있고 바랑과 목탁은 어진 弟子들에게 끼쳐주었으니 오직 香불만이 말없이 타올라 禪師님의 木鐺소리가 들리는 듯하며 瑞雅한 모습만이 虛空에서 오락가락 아롱거리어 그 깊은 感回 비길바 없어 이 貞石에 그 禪法과 行狀을 刻하여 그 偉雄하심을 後世에 傳하고자 함이 其六이니라.

中和 4年 歲次甲辰 李秋 9月 戊子朔旬有 9日 丙子에 建立했다. 碑頭로부터 第七行 禪字以下는 弟子 前兵部待郎 入朝使 殿中大監 紫金魚袋를 下賜받은 金彦卿이 王命으로 지은 것이오 興輪寺의 僧 釋賢暢이 刻字함이니라.